

● 이용자의 견해

# 화재의 원인은 바로 인간



金 異 然  
(소 설 가)

## 화재 없는 행복

가끔 나는 꿈 속에서 불구경을 하거나 불길에 쫓겨다니곤 했다. 그런 기억도 나에겐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았다. 마치 실제로 내가 겪은 사실처럼 생생하게 살아났다. 꿈 속에서 들어 날랐던 짐이 아직도 내 어깨를 누르는 것 같다. 늘 침범거리는 냇가에 다달았을 때엔 다리마저 없어졌었다. 팔뚝뚝이어서 수퍼우먼처럼 그 내를 건넌던 꿈이 바로 어제밤에 꾸 꿈 같았다.

불길에 싸인데다가 나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 칼을 든 장군에게 쫓기기 까지 했다. 돌아다 보면 불길이 코 앞에 와 닿았다. 그 불길 때문에 칼을 든 장군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때의 아쉬움이 불길과 함께 내 가슴을 뜨겁게 채워주고 있다. 불은 화재라는 불길한 기억보다는 꿈 속의 아쉬움 같은 것으로 대신했다. 어쩌면 이것 부터가 내가 얻은 행복의 하나인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화상을 입은 상처나 빈털터리가 된 절망을 연상하게 되는 게 당연했다.

대왕코너, 대연각 호텔, 대야호텔 화재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커다란 화재 사건이었다. T.V로 화재 현장을중계하기조차 했으니 인간이 하는 일이란 잔인하다고 할는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를 하나의 드라마로 썸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난뒤에 남는 얘기는 끊임 없이 먼지처럼 떨어져 나온다. 한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흔적이 화재의 현장 이상이었다.

화재는 화재가 난 그 현장을 휩쓸고 지나간 것뿐이 아니라 그 현장의 몇배의 반경으로 그 불길을 번져나간 셈이었다. 차라리 죽어버린 사람은 그대로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살아 남아 있으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감옥에 든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다른 빌딩의 화재와 달라서 호텔의 화재는 인명 피해가 큰 것이 그 특징이다. 사람이 모여드는 장소이고 또 호텔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선 안락하고 조용하고 그 어떤 분위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적이지 못하다.

다소 안이해 지려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여행자들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모처럼의 일상생활에서의 이탈은 약간의 흥분한 기분이기도 하다. 비지네스나, 즐거운 여행이거나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화재가 일어나서 바로 내가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구출을 기다리며 손을 흔들게 되리라고 불길한 예상을 하면서 호텔에 들어서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비상구를 보아 두거나, 어떻게 여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토록 성실했던 가장이 그 화재의 현장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투숙하고 있었던 충격을 아내에게 남기고 간 사건도 있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버려서 더욱 안타깝다.

우리 나라 뿐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대형 화

재사건은 거의 호텔화재였다. 타워링이란 외국 영화가 보여준 사건도 픽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그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다. 호사를 맞은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흥분하고 해이한 주의력을 가지고 있다. 다마라는 말은 단순히 마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 속의 해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재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한 인간에게로 온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다. 어떤 큰 화재라도 그 불씨는 결국 한 사람에게로 간다.

며칠 전 아파트의 5층에서 불이 일어났다. 아이들의 불장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따지고 보면 집을 잘 비우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엄마 한 사람의 잘못이었다.

공사비를 아낀 건물주 한 사람의 잘못이고, 전기 누전을 점검한 그 어떤 전공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내열성 카펫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상인의 잘못일 수도 있다.

## 단절된 외계

호텔화재의 원인은 뻔하다. 아늑하다는 것은 곧 어둡고 낯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호텔에 들어서면 우선 서로의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굵은 기둥이 로비에서 있다. 그것은 대개 검은 빛 거울로 목격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미로 역할을 하여서 방향 감각을 잃게 한다.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자동식으로 운행한다. 호텔의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안내하는 손이 필요할 때에 아무도 없게 된다. 그야말로 단절된 외계로 변한다. 이때 엘리베이터 걸이라도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층에서 일어나는 비상 사태를 빨리 알 수도 없다. 소리를 완전히 죽여주는 두터운 카펫이 우선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흙이 묻었던 신발도 말끔히 씻어주고 몇 걸음 걷는 동안에 그 흙발의 주인은 지난날의 자기를 잊는다. 호화로운 호텔에 어울리는 자기로 변한다. 어쨌든 인간은 적응하는 데는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이다.

몇층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은은한 음악이 황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겨우 발밑이 보일 정도의 조명이 있는 기다란 복도가 있다. 분명히 맞은편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도 희미하게 어깨의 선이 나지막한 천정과 맞닿아서 움직이고 있는게 보일 뿐이다.

각 방에 써붙인 흡수판도 가까이 가서 보아야 겨우 읽을 수 있다. 그것 역시 아늑하다고 그렇게 꾸민 것이다. 어깨를 끼고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조명이다. 그 다음엔 방음이다. 옆 방에서 좀 심한 예로 살인이 나도 그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 것을 두고 좋은 호텔이라고 말한다.

집장수가 지은 집을 살 때 잘 지은 집인가를 알려면 얼마나 벽을 두텁게 지었나 즉 문지방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고 한다. 방음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지어진 호텔이라는 것이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다.

싸구려 여관은 베니어 판으로 막고 그 위에 도배지를 발랐다한다.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릴 뿐더러, 때로는 벽 틈이 벌어진 사이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영향에 방해받지 않는 일류 호텔을 원한다.

## 누전이란 진단

일류·삼류 호텔보다 이류 호텔에서, 그보다는 일류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인명 피해도 놀라웠다. 그 대부분의 원인이 전기의 누전으로 진단이 내려졌고, 소방시설 개수 명령을 받고 문을 잠시 닫았다가 흐지부지된 다음에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곤 한다.

여전히 호텔의 내부는 어둡고 좁다. 한군데도 바뀐데가 없다. 심한 호텔은 개수명령을 핑계로 호텔을 집어치우고 아예 수익성이 좋은 사우나로 업종을 바꾸어 버린다. 다만 누전이라는 보고만 있었을 뿐 어떤 구체적인 보고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재하면 으레히 누전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한다. 실화의 경우도 누전으로 처리하여 사람에게 처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게 통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누전으로 돌리고 정확한 확인을 감추어왔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장애가 되어 왔다. 누전이란 미리 점검하여 예방하기란 그 예방율이 낮기 때문이다. 전기란 사용하는 동안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으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호텔의 화재엔 어째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일까. 두터운 카펫이 깔려 있어 일단 발화되면 지독한 악취를 뿜어낸다. 호흡을 곤란하게 하여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원인은 멀쩡한 창문을 밀폐하고 두터운 커튼을 드리워 놓은 데도 일부 원인은 있다.

게다가 반 수 이상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술에 절어 있거나, 정신적으로 나태해진 상태의 투숙객이 많다. 그래서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다.

더우기 남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의 정보에 대해서 어둡다. 대피가 뒤늦어질 것은 당연하다. 음성적인 분위기에서 보다 밝은 호텔을 연출해내는 법적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엘리베이터를 두 세군데로 분산해서 설치해야 하며, 더 좋은 방법은 호텔건물의 전원과 별개의 전원으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화재를 겪은 흔적이 잘 말해주듯이 그것은 말 그대로 폐허이다. 그 폐허가 주는 절망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참으로 견디어내기 어려운 절망이다. ❖